

## 24년 10월 목회일정

6일(주일)	정기제직회
13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20일(주일)	연합야외예배(김해개혁장로교회)
27일(주일)	종교개혁기념일 특강(양주동 목사)
10.21~11.16	공식심방(재정심방포함)
8일(화)	부산중부노회 장로회연합회(동래교회당)
15일(화)	부산중부노회 정기노회(거제교회당)
29일(화)	고재수교수 기념신학강좌(고려신학대학원)

## 주간소식

-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오후예배헌금** / 선교목적(외국인근로자선교회)
  - 신앙고백반교육** / 입교반- 김성재 이은수학생
  - 성찬입회 면담 및 입회식** / 이근영성도의 성찬입회면담 및 입회식이 오전예배 전후에 있습니다.(2교구-성찬1조)
  - 성찬조별기도회** / 오늘 오후예배 후에 있습니다.
  - 부산중부노회 정기노회** / 15일(화) 오전9:30 거제교회당  
노회원 : 최성림 양주동 장로총대 : 김영민 고충석
  - 목사동정** / 1) 노회고시부 - 14일(월) 오전9:30 거제교회당  
2) 동래시찰회 - 17일(목) 오전11시 사직동교회당
  - 연합야외예배** / 다음 주일에 김해개혁장로교회와 가집니다.  
-장소 :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소회의실 2) (3면 참조)
  - 공식심방** / 심방일자를 정하셔서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세요  
1) 기간 : 10.21(월)~11.16.(토)  
2) 1교구 - 양주동 김영민 김낙형  
2교구 - 최성림 고충석 이경준
  - 공식심방을 위한 연합당회** / 모든 순서 후에 모이겠습니다.
  -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기도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 이 달의 봉사자

	10월	11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김낙형	박지영
안 내	최예지	김민혁

##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 개혁 언론)
	파 서 교 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국 성 연 화 교 회 ( 최 지 혁 )
장학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 교회봉사자

- 담임목사 / 최성림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강 도 사 / 양주동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10.13.(제28-41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 개 회

\* 예배에로의 부름 ↑ 시128:1-2(교송)

인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회 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 배 찬 송 ↑ 시편89편(1-2)

## 죄의고백

\* 십 계 명 봉 독 ↓ 신5장(전계명/봉독)

\* 죄 의 공 적 고 백 ↑ 제 9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 사 찬 송 ↑ 찬송10장(1-3)

##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수 22:28-34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33편

설 교 ↓ 설교자

## 형제됨의 증거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 성례시행

세 레 식 ↓ 필요시 시행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27장(1,5)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 봉사사역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찬송35장(1-3b)

## 폐 회

\* 강 복 선 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99:1,3(교송)			
	인도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회 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 축복의인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배찬송 ↑ 시편50편(6)			
	신앙고백			
	* 신앙고백 ↓ 사도신경(고신총회)			
	* 감사찬송 ↑ 찬송24장(1)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롬3:19-24,창6:5-8			
	교리문답교독 ↓ 소교리82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24장(2a-3b)			
설교 ↓ 설교자				
계명을 완전히 지킬 자가 있는가?				
아멘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 구제헌금 분병 분잔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24장(4-5b)				
폐회				
* 강복선언 ↓ 주기도문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에스라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삶]				
인도 : 최성림 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울산(화, 19:30)				
인도 : 양주동 강도사				
* 김해(월, 20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이야기성경				
구	72. 하나님의 종 엘리사선지자			
신	46. 감옥에 갇힌 베드로			
주간성경읽기				
주일	창37-38	요1:1-28		
월	창39-41	요1:29-51		
화	창42-44	요 2		
수	창45-46	요 3		
목	창47-48	요4:1-26		
금	창49-50	요4:27-54		
토	신 1-2	요5:1-24		

주일설교를 기억하며(형제 됨의 증거)

1. 당회와 노회가 교회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성도를 사랑으로 살피기를
2.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3. 천상의 교회에 연합하고자 하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복사)

1. 복음전파가 자유로운 우리나라에 찾아온 불교와 이슬람권 이주민 외국인근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2. 인구감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요즘 더 깊이 복음을 전할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성도들의 일상을 위해

1. 6일 동안 맡겨진 의무를 균형있게 잘 감당함으로써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환경되게
2. 감정조절을 잘하여 어떤 순간에도 순결하고 어여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3. 성경의 교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보며 더욱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배의 삶을 위하여

1. 예배를 사모하며 옛세 동안 최선을 다해 자기일을 함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생활되게
2. 예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예배 안에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풍성한 복을 누리게
3. 성도들이 일상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림으로서 삶이 영적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게

김해개혁장로교회 & 동래연약교회 연합야외예배

1. 일시 : 2024년 10월 20일(주일) 10:30~16:30
2. 장소 : 금련산청소년 수련원(부산시 수영구 황령산로 156)
3. 시간표

10:30~11:00 회집(늦지 않도록 합시다)  
11:00~12:20 연합예배(인도 설교-김태영 목사, 목회기도-최성림 목사)  
12:20~12:30 두 교회 인사 및 단체 기념촬영  
12:30~14:0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4:00~16:00 친교를 위한 시간(담당 / 심다복집사)  
16:00~16:30 소감발표회와 마침기도회(인도 / 최성림 목사)

4. 차량배정

- 1) 최성림 : 김경이 최하연 최진언 이영서
- 2) 고충석 : 김명순 고태은 고주은 고서은
- 3) 김낙형 : 강정희 김성윤 김성재
- 4) 김영민 : 노주혜 김선우 김지현
- 5) 이경준 : 최현미 이은수 이은우
- 6) 박지영 : 조안나 박재희 박재윤 조완식
- 7) 구성본 : 김학희 구하영 구하린 최예지
- 8) 김용대 : 문경실 김이현 김이찬 김이설 고대벽
- 9) 방준범 : 김유니 방하림 이근영
- 9) 김민혁 : 이하나 김이준 김이솔
- 10) 양주동 : 김요림 양 선 양 현
- 11) 배성은 : 김신혜 서봉희 12) 김영규 : 박종순 김영덕

디다케(Διδαχη)가 말하는 [교우손님접대]

지금은 주후100년경 시리아의 어느 시골교회의 교육지침으로 밝혀졌지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알려졌던 [디다케]라는 책의 제 12 장 ‘교우손님접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이를 받아들이시오. 여러분에게도 판단 능력이 있으니 그를 시험하여 그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보십시오.

오는 이가 여행자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우십시오. 그는 혹 필요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서 이틀이나 사흘 이상은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기술장으로 여러분 중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을 하여 먹고 살도록 하시오. 만일 그에게 기술이 없으면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 보살펴 그리스도인으로 서 여러분 가운데서 게으름을 피우며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요! 여러분은 이런 자들을 조심 하여야 하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자신의 집에 머무려는 방문객에게 ‘반드시 일을 하도록 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처음 교회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지 않나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하고 허술하긴 하지만 제게 있는 기술을 잘 사용하여서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다져봅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선을 행할 의지가 타락한 인간에게도 미세하지만 조금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무로 말하자면 나쁜 나무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신27:26)

2.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은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을 주실 때 구원을 먼저 선포하십니다.(출20:1-2)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만이 요구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한 의’, 곧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롬3:21-22) 성령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사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분 안에서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의에 참여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며 도리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가진 특권이며, 하나님의 계명은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이기에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소교리82문답)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다 이룬 것으로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롬8:3-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보내신 성령님께서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0월13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27장
성경봉독	수 22:28-34
설 교	형제됨의 증거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은 언약공동체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이 나고, 치리 사건이 발생합니다.

1. 치리회의 질책

요단 동편 지파들(르우벤, 갓, 므낫세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실로였습니다. 실로가 아닌 곳에 제단을 쌓는다는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며, 이스라엘과 다른 예배를 드리겠다는 배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형제성원들의 범죄를 치리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치리회’가 열립니다.

치리회는 동편 지파가 저지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하여, 열 개의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선출하여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이들은 교회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죄악을 처벌하는 역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이후로는 “장로”로서 그 직분이 구분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들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지도자들로서 교회를 감독하고, 성도의 영적상태를 살폈습니다.

대표단은 동편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길르앗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동편 지파들을 불러서 질책합니다(16-20절). 여기서 두 가지 과거 범죄 사건을 언급합니다. 브올에서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입니다. 브올에서의 죄는 민수기 25장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행음을 했던 사건입니다. 단순한 행음이 아니라, 이방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섞인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브올에서의 죄와 아간의 범죄는 서로 죄의 성격이 달라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재앙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다른 제단을 쌓은 일도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재앙을 몰고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의 사안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교회의 형제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모여

사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편에 사는 지파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범죄를 가만히 넘어갔을 겁니다. 더 이상 한 언약공동체가 아닌데, 그들이 범죄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교회는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들을 한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곧장 모여 치리회를 열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동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렸던 치리는,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그들을 한 형제로 여기는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니다.

2. 흡족한 답변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잊어버릴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야웨께 받을 분깃이 없다”며 이스라엘 교회로부터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제단’을 쌓아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동편에 사는 지파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 제단의 모형을 볼 때마다 원형인 실로의 제단을 기억할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제단 모형은 제사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엣”이라 부릅니다. “엣”의 뜻은 “증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동편 지파들이 ‘분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을 듣고 보니 그건 “연합”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한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표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가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분 주님을 한 믿음으로 모시며 하나의 언약공동체가 되었음을 믿고 보여줍니다.

동편 지파의 답변을 들은 비느하스가 대답합니다(31). 그의 대답에는 3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일종의 최종판결문입니다. 1) 이스라엘 모두에게 한 언약공동체로서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셨지만, 그들 모두에게 참된 신앙고백을 주신 분이십니다. 2) 비느하스는 “너희가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치리회의 판결입니다. 정황을 조사해보니 동편 지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3) 그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야웨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동편 지파들이 범죄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범죄했다면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편 지파들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은 일도, 권징을 하고자 했던 일도, 모두 다 한 언약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야웨 하나님만이 모든 성도를 하나의 교회로 모으신다는 참된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신앙고백이 있는 교회는 영원한 천상의 교회에 연합한 교회로서 늘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0월13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548장
성경봉독	.....	롬3:19-24, 창6:5-8
설 교	계명을 완전히 지킬 자가 있는가?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 “하나님께서는 율법 앞에서 비참한 인간을 위하여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셨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일까요?

1.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소교리82문답) 전적인 타락! 이 말은 한사람 아담이 온 인류의 언약의 대표로서 범한 죄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롬 3:10-12/ 참,시14:1-3)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창6:5)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 뿌리까지 다 지워버리시기 위해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죄가 관영한 온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세상의 강포와 파괴는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악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온 세상을 멸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창8:21, 시51:5) 그 무섭고 끔찍한 대 홍수도 죄악을 완전히 침몰시키지 못했으며, 그 죄악의 강포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생명보다 끈질긴 것이 이 죄악인 것입니다.(렘17:9;막7:21-23) 죄악 중에 잉태된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그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는 모든 행실에서 죄를 더할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죄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저주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생과 내생에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소교리 19문답)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치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르미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